

발언대

우리에게 탈북자는 누구인가?

올해는 역사적으로 뜻이 깊은 해이다. 1945년에 세계대전이 끝나고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 사이에 뽕나무 밭이 바다로 변하는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다. 그 70년간의 세계사를 요약하는 단 하나의 표현을 찾는다면 무엇일까? 나는 '냉전'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라는 새로운 패권국이 만들고 운영해 온 이 70살의 냉전구조가 되풀이 되고 있다. 북한과 쌍벽을 이루던 '붉은 국가' 쿠바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1일 라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 뒤 "쿠바를 둘러싼 냉전은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서옥자
위싱턴침례대 교수

나 이 정도의 생각은 탈북자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단순하고 냉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미국에 와서 생활을 하는 우리 동포들과 탈북자 사이에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들은 모두 냉전구조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한 미중동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새로운 삶, 더 나은 삶을 찾아 온 사람들이다. 그 배경에는 한국이 냉전에 의하여 분단된 국가라는 사실 이 있다. 한반도가 통일된 평화로운 공동체였다면 삶의 터전을 뿌리채 옮긴다는 엄청난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을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제 한반도의 분단만이 처절하게 남아있다. 그러나 하늘 아래 모든 것은 변한다. 다음은 북한이 될 수 밖에 없다. 시발역을 떠난 열차는 언제가는 종착역에 도착하듯이, 북한의 변혁과 개방은 당연할 것이다. 문제는 그 시기와 과정이다. 한국의 통일부장관들이 '통일은 도둑놈처럼 온다'고 말하는 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깔려있다. 나는 최근에 탈북자를 지원하는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그 일을 하면서 느끼고 반성하는 것이 많다. 먼저 북한을 탈출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추구한 어머니가 북녘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는 어린 자식을 데려오기 위해 처절하게 몸무렵치는 모습을 보며 나의 메탈라버린 삶의 각질을 벗기어 내고 싶었다. 그런 충격적인 경험 속에서 내 마음 속에 떠오른 아주 초보적인 질문이 있다.

인간에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명제를 우리는 마치 공기와 같이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는 지금 2천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가난과 핍박과 공포를 속절없이 자식에게 물려며 사는 그 '라이프스타일'을 그들이 선택한 것은 아니다. 냉전이 앉혀놓은 독재정권이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그 강요를 묵숨으로써 거부하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탈북자이다.

그들의 행동은 유럽의 전제에 항거하여 미국대륙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이나 더 큰 자유와 기회를 얻기 위하여 한국에서 온 이민자들

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이 탈북자들이 한국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에는 많은 스트레스가 따른다고 들었다. 서로가 오랜 세월동안 다른 이념과, 상식체계, 정서면에서 살아왔으니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팔을 벌리고 다가가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미국의 동포들이다. 우리들에게 탈북자들은 '자유의 동지'이기 때문이다.

이 자유의 동지들을 위해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두가지 점을 지적하며 글을 맺고 싶다. 첫째, 천진만고 끝에 이 자유의 땅,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심리적, 정서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북한 땅에서 찢기고 메마른 상처가 현재의 삶 적응에 어려움을 준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추상적인 구호나 평론이 아니라 미국사회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이다. 또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도 우리 동포들은 선한 이웃으로서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라는 왕조를 탈출한 이들은 지금 세계최고로 디지털화한 미국사회에 있다. 따라서 이들은 미국사회에 동화하고 여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인문교양, 언어, 직업인이 될 수 있는 기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어떤 특정한 행정기구나 단체가 다 수행할 수는 없다. 이들을 가르치고 준비시키는데 가장 좋은 입장에 있는 이들이 우리 동포들이다. 우리는 같은 언어, 생활감각, 그리고 동족으로서의 유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



김학천
치과의사

열린 광장

천자문 첫 구절은 천지현황(天地玄黃)이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는 얘기가. 한데 최초로 우주에 올라간 구소련 비행사는 하늘이 파랗지 않고 검은 것을 보고 놀랐다. 더 놀란 것은 그 아득한 옛날 중국인은 우주에 가 보지도 않고 우주가 빛이 없이 캄캄하다고 했다는 것인데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중국인들의 지혜에 머리가 절로 숙여진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저 멀리 우주로 날아가고픈 꿈을 꾸었다. 그 시작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출발한다. 미노스의 왕은 왕비가 불륜으로 낳은 문제의 반인반수 미노타우루스를 가두기 위해 기발한 괴물이 재주꾼 다이달로스에게 명령하여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 나올 수 없는 미궁을 그에게 지어 주었다. 다이달로스는

어느 쪽이 바다인지 모르는 착각에도 빠진다.

1차 대전 당시 사망한 영국 조종사들에 대한 연구 결과 80~90%가 방향각각의 상실과 실수에 의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이 조사로 미국은 미군 항공의학부를 만들어 조종사에 대한 신체적 기준을 마련하면서 의사들에게도 조종사와 같은 비행훈련을 시켜 비행군 의관의 자격을 주었다.

이들은 조종사들의 선발기준 검사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검사를 포함한 모든 점을 점

분별 잃은 이카로스의 후예들

아들 이카로스과 함께 본인이 만든 미궁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탈출은 바다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늘만이 유일했다. 그는 새의 뼈대에 밀랍을 붙여 날개를 만들어 아들과 같이 하늘로 날아올라 무사히 탈출했다. 그러나 아들 이카로스는 흥분한 나머지 욕심을 부려 태양에 너무 가까이 높이 날아 올라갔다 밀랍이 녹아 내려 날개는 떨어져 나가고 바다로 추락했다. 최초의 항공 사고였던 셈이다.

그 후에도 하늘을 날고자 하는 인간의 도전은 그칠 줄 몰랐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날개 달린 비행기를 설계한 것을 시작으로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동력비행기를 만들어 12 초 동안 날았던 역사적인 순간을 거쳐 린드버그가 파리와 뉴욕 간 대서양 횡단비행에 성공하기에 이른다. 이제는 우주비행을 하는 수준까지 왔다.

초기의 군사용 비행기들은 조종실에 창이 없이 열려있어 고공의 찬 기류와 낮은 기온에 노출되어 항공 사고도 많았다. 푸른 하늘과 파란 바다 사이에서 비행기가 회전하는 순간 조종사는 어디가 하늘이고

검하는데 심지어는 그들의 비행 전 부부관계까지도 체크한다고 한다. 이런 세밀한 관심으로 조종사들이 비행하는 데 있어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 정신적으로 인한 실수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물며 수백 명의 고귀한 생명에 대한 안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여객기의 조종간을 잡는 조종사들은 더욱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최근 독일 저먼빙스 여객기의 추락 참사는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는 한 사람의 자살 충동에 따른 고의적인 사고라는 추정에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게다가 독일의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법이 화를 자초했다고 하는 지적도 문제다. 항공기 자체는 꼼꼼히 정밀 점검하면서 이를 모는 조종사의 정신적 질환 체크를 허술히 하다가 당한 이번 참사를 무엇으로 해명할 수 있을까. 이는 단순한 자살사건이 아니라 149명의 고귀한 목숨을 계획적으로 빼앗아간 특급 살인사건이요 테러라 아니할 수 없다.

분별 잃은 이카로스의 후예들이 더 이상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독자 마당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향기로운 인생을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커피가 음료수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물이 더 중요하다. 물이 없으면 인간은 살지 못한다. 얼마간 굶어도 목숨이 유지되지만 물은 절대적이다. 이런 물 다음으로 꼽으라면 커피다. 나는 하루에 석 잔의 커피를 마신다. 크림이나 설탕을 넣지 않고 순수하게 커피만 마신다. 매일 마시지만 그 맛은 형용할 수가 없다.

그 오묘한 맛은 다른 음료가 따라오지 못한다.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며 구수하기도 하다. 커피가 좋다보니 하루 중에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때다.

그런데 사람도 커피 같은 사람이 있다. 내가 근무했던 시립교향악단 총괄 지휘자였던 미스터 한이라는 분이. 그분은 커피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 그분의 심심에는 커피 맛과 같이 다양한 마음을 포용하는 너그러움이 있었다. 악단에는 단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는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을 존

중해 주었다. 그러다 보니 오케스트라에는 전혀 불협화음이 없었다. 쓴맛도 단맛도 모두 받아들이면서 단체의 화합을 중시했던 지휘자의 훌륭한 인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에게서는 마치 커피에서 나는 듯한 향기가 나기도 했다. 인생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것이 쉽지는 않다. 남을 배려하고 조금만 양보하면 커피향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 오늘도 커피 한 잔을 마주하면서 삶의 지혜를 깨달아 간다.

장인환·전 서울시합창바이올리니스트

이민업무 · 시민권 · 친척입양 · 비즈니스매매 · ABC 라이선스



Junghoon Samuel Kim
Attorney at Law, MD & DC

김정훈 변호사

www.samkimlaw.com

김정훈 변호사는 그동안 아래와 같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 Stay of Deportation (ICE에서 추방 출두 날짜를 받고 추방 이틀전에 추방 연기 받음)
- Stay of Removal & Adjustment of Status(자진 출국 받고 12년 후에 추방재판 재개해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추방재판소에서 영주권 획득함) Cancellation of Removal(중범 형사 기록있는 영주권자의 추방 방어. 미국 체류함) Waiver Application for Re-admission(미국에서 추방받고 한국에서 미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Waiver받아 영주권 비자받고 미국에 재 입국함) Rescinding Removal Order & Adjustment of Status(시민권자와 결혼 실패로 추방 명령받고 학대받고 있는 아내가 법원에서 영주권 획득함) 추방재판에서 재정 부실 영주권 스폰서를 고용. 능력있는 회사로 바꾸어서 영주권 획득. 추방재판에서 영주권 신청 자격없는 가족들, 물론 메모에 의해 추방재판 취소 및 추방유예 받음

변호사/사무장 구함 Send resume to samkimlaw@gmail.com

Sam Kim Law Firm, LLC

이민업무

- 결혼이민 / 약혼비자
- E2 투자비자 (한국 CANADA 시민)
- 취업이민 / 취업비자 / 학생비자
- 투자 이민 (1 mil / Regional)
- 종교비자 / 종교이민
- 이민국 인터뷰 변호

추방재판/시민권

- 형사기록자 시민권 신청
- 시민권 인터뷰 변호
- 불체자 / 영주권자 추방 방어
- 이민국 구급자 석방
- VA MD PA GA TX FL 법원

비즈니스

- 비즈니스 매매
- 리스 신청 연장 변경
- 주식회사 / 파트너십
- ABC 주류라이선스
- 주류 라이선스 청문회

입양/기타업무

- 친척입양 청문회 / 재판
- MG, PG, Howard, Balto
- Anne Arundel, Frederick
- Cecil, St.Mary Counties
- 이름변경 / 비영리 단체
- 민사 및 형사사건

MD 락빌 301-346-8333 932 Hungerford Dr. Suite 26D Rockville, MD 20850

MD 콜롬비아 410-730-1775

8860 Columbia 100 Pkwy, Suite 307 Columbia, MD 21045



백성호 공인회계사

2015년 TAX RETURN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새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 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미국 세법이 보장하는

고객분들의 빠른 Refund! 최대한의 Refund!
최소한의 세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토요일 OPEN

GWTS, LLC. T. 703-658-4611/F. 703-642-2140 4231 Markham St., Suite 208, Annandale, VA 22003 / Jamesbaikpa@gmail.com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8호)